

목포권

# 남악택지 불량 골재 사용 논란

## 주민들 “회산 방죽 매립토 일부 섞어 악취” 감리단 “적합성 판단 성분 조사, 이상 없어”

남악택지 일부 지역이 불량 토사로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Y건설과 H건설이 시공사인 남악택지지구 4-2공구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착공,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달 15일부터 무안 회산방죽 주차장 매립시 사용했던 순환골재 약 1만 m를 반입해 택지

조성 공사에 사용하고 있다. 3만1천㎡ 규모의 회산방죽 주차장은 무안군이 연꽃 축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약 2만㎡의 토사로 매립했다. 무안군은 오는 28일로 임대기간이 종료돼 원상복구를 위해 전담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이들 골재를 제공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들은 일부 토사가 섞여 악취가 풍기는 등 매립용 골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골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폐 비닐 등 많은 오물이 수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감리단 관계자는 “최근 재생골재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가지정 시험연구소에 성분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구리, 수은, 납 등 화학성분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골재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토사 반입이 중단돼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진돗개, 표준 체형으로 통일해야”

### 전남대 이재일 교수팀 용역 결과 혈통 일원화 시스템 구축도 시급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원화 돼 있는 진돗개 표준 체형을 진도군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 체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대 이재일교수와 공주대 박영석 교수 팀은 최근 “진도군이 진돗개 심사에 적용하는 표준 체형을 통일안으로 결정하고 진돗개 보호 육성을 위한 혈통 일원

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진돗개 혈통 고정 및 육성방안’ 용역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현재 애견연맹과 애견협회, 진도군 등 각 단체별로 각각 다른 진돗개 표준 체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와 진도군은 이같은 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 체형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를 진돗개 혈통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우수혈통 기초 견 150마리를 1억 4천여 만 원을 들여 매입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설 연휴 ‘옹이공방 도예 체험’해 볼까

### 도자전시관 6~8일 체험행사

목포 한국 산업도자전시관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통차 향기, 가득한 옹이공방 도예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 차 시음회 ▲어린이 도예 체험 ▲전통 떡 나누기 ▲새해 희망나무 꾸미기 ▲전통놀이 한마당 ▲살날풍속 알아보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어린이 도예 체험’프로그램은 도자기 흙을 이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악세서리 등을 만들며 ‘전통차 시음’행사는 녹차·보이차·발효차를 시음하고 전통 다식도 만들어 본다. 또 전시관 로비에 설치된 대형 인조 자작나무에 가족의 한 해 소망을 적은 희망카드를 매다는 ‘새해 희망나무 꾸미기’ 행사도 마련된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 “나눔공간 ‘행복마켓’ 오세요”

### 목포 7월부터 시범운영

목포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필수품 나눔 공간인 ‘행복마켓’을 운영한다. 행복마켓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생활 필수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이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게 형태의 나눔 공간이다. 시는 오는 7월 무안동 구도심 권에 1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

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행복마켓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또는 동장이 추천한 비수급 생계곤란자로 월 1회 2~3종의 생필품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취급품목은 쌀 등 농산품과 가공식품이며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역에서 설 귀성객 환영행사 다채

목포시가 5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용산발 목포행 KTX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목포역 구내에서 귀성객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정종득 시장과 한복차림의 주부 명예기자들이 첫 번째 도착 귀성객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최근 고향소식과 야간 경관을 소개한 목포 홍보용 투병출타를 배부한다.

또 시립 교향악단의 목포의 노래 연주와 함께 나치·홍어 캐리커가 귀성객들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어린이 귀성객을 위해 풍선아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목포역 광장에서는 민속놀이 공연이 펼쳐져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새얼굴

## “특색사업 발굴 지원에 최선”

### 이재복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부장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복(56) 신임 농협중앙회 목포신안 지부장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안좌 출신이인 지부장은 지난 71년 농협에 입사해 목포신

안 시군 지부 부지부장, 목포 동명동 지점장, 광주지역본부 경제본부부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옥희씨와의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기업 투자유치” 진도 공무원 총력 다짐대회



진도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총력 다짐 대회’를 가졌다. 군은 올해를 ‘투자유치 총력의 해’로 정하고 기업유치 마을과 주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옥암지구 택지 25만㎡ 판매합니다”

### 28일부터 수의계약·입찰

목포시가 옥암 택지개발지구 내 대학 용지와 단독주택,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 등 18필지 25만 2천313㎡를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될 대학용지 19만 6천978㎡는 오는 28일부터 수의 계약으로, 블록형 단독주택 2필지 3만 9천783㎡는 다음 달 3일 접수를 통한 추첨 분양형식의 수의계약으로 각각 공급될 예정

이다.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 14필지와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용지 1필지는 다음 달 4일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목포시가 1, 2단계로 나눠 개발 중인 옥암 택지개발지구는 총 260만 8천㎡로 1단계 택지는 78% 매각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시의료원장에 최태욱씨 임명

목포시 의료원장에 최태욱(67)씨가 임명됐다. 목포시는 지난 1일 의료원장 선임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제 8대 의료원장으로 선정했다. 최 원장은 이날부터 3년간 시 의료원을 이끌게 됐다. 목포교과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최원장은 지난 73년부터 34년간 개

인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목포시의 사협회 회장과 광주·전남 혁신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서남해안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실맞이  
본사지원  
Sale